

전남광주특별시, 광주시 ‘영호남 문화예술관광 교류’ 잇는다

대구·경북 주제관 등 70여 개 부스 마련

영호남 문화예술 공연·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선보여



영·호남 문화예술관광박람회 포스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동구 5·18민주광장 일원에서 ‘2026 동서화합 영호남 문화예술관광박람회’를 연다.

이번 박람회는 달빛동맹을 기반으로 영호남 문화예술 교류를 확대하고 지역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호남권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영남권인 대구광역시·경상북도가 참여해 지역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박람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대구·경북 주제관을 비롯해 영호남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홍보관 등 70여 부스로 꾸며진다.

박람회 주무대에서는 영호남의 문화와 대중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18일 ‘청춘버스커 뮤지컬웨이브’를 시작으로 ‘추억의 DJ웨이브쇼’가 열리고, 19일에는 ‘동서화합 백투더 조선 판타지쇼’와 ‘동서화합 백투더 오월

판타지쇼’, ‘동서화합 씨네마광장’, ‘힐합웨이브쇼’ 등이 진행된다. 체험관에서는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반도체·AI 미래산업 체험관을 마련해 전남광주의 미래산업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영호남 특산물을 활용한 쿠키클래스 ‘단짠단짠’과 나만의 티셔츠 만들기 등 세대별 참여가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박람회와 연계해 영호남 시민이 함께하는 문화예술교류 투어도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다.

전남광주와 대구·경북 시민, 청년서포터즈, 관광 관련 학과 대학생 등 100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전남광주 관광지를 둘러보고 박람회 개막식에도 참여한다.

황인재 문화본부장은 “이번 박람회는 달빛동맹이라는 특별한 인연을 바탕으로 영호남이 문화와 관광으로 하나 되는 뜻깊은 자리”라며 “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은 물론 반도체·AI 미래산업 체험관까지 마련한 만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박람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각 지역의 대표 관광자원과 축제, 특산물 등을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어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전시·홍보 부스에서는 지역별 관광 콘텐츠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영호남 간 교류의 장을 넓힌다.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 콘텐츠를 다양하게 구성해 누구나 부담 없이 박람회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지역 예술인과 청년들이 참여하는 공연과 프로그램도 마련해 현장에 활기를 더할 예정이다. 관광객들은 박람회장을 둘러보며 영호남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와 관광 콘텐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이가영 기자

현대차그룹, 카자흐스탄과 알라타우 시티 협약

현대차그룹은 최근 제1차 한-중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에서 카자흐스탄 민간 투자기업 ‘카스피안 그룹(Caspian Group)’과 금융·투자 기업 ‘유나이티드 그룹 알라타우(United Group Alatau)’와 알라

타우 시티 프로젝트를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현대차그룹 기획조정담당 서강현 사장, 카스피안 그룹 최유리(Yuri Tskhay) 회장, 유나이티드 그룹 알라타우의 회장

이자 금융 기업 ‘알라타우 시티 뱅크(Alatau City Bank)’ 및 ‘카스피 그룹(Kaspi.kz)’의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비아체슬라프 킴(Vyacheslav Kim)이 참석했다.

알라타우 시티 프로젝트는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큰 도시인 알마티 북쪽에 880㎢ 규모로 조성 중인 카자흐스탄 최대 규모의 신도시 사업으로 카자흐스탄 대통령령에 의해 국가 프로젝트로 지정된 특별경제구역(SEZ)이다. 해당 프

젝트는 카스피안 그룹이 도시개발과 현지 실행을 주도하고 유나이티드 그룹 알라타우의 금융·디지털 생태계를 결합해 진행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협약을 통해 카자흐스탄을 중앙아시아 내 피지컬 AI 기반 미래도시 사업 거점으로 확보하고 현지 기업과 연계해 알라타우 시티에서 스마트시티 사업 모색 및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한다. 이 가운데 현대차그룹은 알

라타우 시티와 알마티를 잇는 핵심 지역인 알라타우 시티의 게이트 구역(Gate District)을 중심으로 도시 개발·운영과 연계된 사업 기회를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모빌리티 ▲에너지 ▲디지털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타당성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 범위와 참여 방안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카자흐스탄은 현대차그룹이 오랜 기

간 사업 기반을 구축한 중요한 시장으로 이번 협력을 통해 실제 고객과 도시의 수요에 기반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겠다”면서 “향후 충분한 사업성 검증을 거쳐 알라타우 시티가 미래 도시 서비스와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모델을 실증하는 협력 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현지 기업과 협력해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가영 기자

